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5/ 11 통권 1570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시간은 돈이다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매출의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는 많은 업종의 회계쟁
점임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
하세요
-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
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공급시기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지연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아파트 ·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개념구분	사업자등록 가능성과 범위(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에 제한 규정 없음)
일반 사무실	당연 가능(업종제한 없음) - 위험물 등은 별도법 적용
근린생활시설	당연 가능(업종제한 없음) - 위험물 등은 별도법 적용
사무용 오피스텔	당연 가능(주변 이웃의 민원이 없는 업종이면 됨)
단독주택(주거용)	가능함(주택 중 일부 여유공간을 개인 단독 사무실로 쓰는 개념)
주거용 오피스텔	제한규정 없어 가능(단, 이웃 주민의 민원이 없어야 함)
공동주택	주거 전용이 원칙이나 제한규정 없음(업종에 따라 이웃의 민원제기 없으면 개 인 자유업종은 가능)
아파트 (대단위 공동주택)	주거 전용이 원칙(단일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 집주인 허락 필요 - 이웃집의 민원이 없으면 개인 자유업종 가능)
LH 임대아파트	주거 전용이 원칙(임대주인 LH가 불이익 등 문제제기하지 않는 현실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70호 / 주간 19호

2022. 5. 11. (수)

· 발 행 인 : 이 윤 언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매출의 총액주의와 순액주의처리는 많은 위탁가공업종의 회계쟁점임	2
C E O 에 세 이	시간은 돈이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고철부산물(스크랩) 거래 시 대금지급관련 문의 - 전기차 가정용 충전기 회계 계정 처리 문의 -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관련 - 임차인이 지출한 수선비 - 법인사업자 간주임대료 6개월 회계 문의 드립니다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과세 방식에 따른 상속세 제도 - 서울시 제안 재산세 세액공제안	10 11
직 장 인 Survival	시간 경영 5계명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기준법령소득-111, 2021.07.23)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부가-4175, 2021.09.16)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공급시기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지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12
세 무 정 보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325만 가구에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6 40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매출의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처리는 많은 위탁가공업종의 회계쟁점임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개념, 구분	거래자(본인)의 총액주의	거래자(대리인)의 순액주의
근거규정 (국제회계기준 K-IFRS 1115호)	재화의 통제권 확보시 전액 매입 · 매출반영	재화의 주선, 부분 임가공공급시, 위 탁 수수료만 매출 반영
거래방법	중간상, 대리인, 임가공자가 원재료 를 책임매입하고 가공 후 총액매출 함	중간대리인이 임가공행위만 하고 매 입 · 매출은 최종 당사자 처리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구입 (차) 원재료 97 (대) 매입채무 97 • 재화판매 (차) 매출채권 100 (대) 매출 100 • 결제완료 (차) 현금예금 3 (대) 매출채권 100 매입채무 97(또는 총액 현금수수) 	재화구입과 판매의 차액만 매출반영 (차) 현금예금 3 (대) 임가공수익 3 (재화구입과 판매는 당사자 간에 97 로 직접거래)

판단기준 (재화의 실질통제여부)	<p>실질적 통제권 있음의 판단근거</p> <p>① 거래의 성립에 대한 주된 책임부담</p> <p>② 매입·매출재화의 재고보유 위험부담</p> <p>③ 재화의 구입가격·판매가격의 재량권 보유</p>	<p>통제권 없음의 예시</p> <p>① 원재료 생산자(다른 당사자)와 수요자의 거래</p> <p>② 생산자와 최종 수요자 간 연간재고생산·소비계획</p> <p>③ 쌍방간의 공급물량에 따른 가격결정의 결과의 수용, 차액정산</p>
실제 업계현실	<p>철강·소재 회사에서 구입해 임가공 후 자동차회사 납품</p> <p>식품수입·소분업체의 자기매출반영</p>	<p>• 항공권 판매수수료 등, 단체 여행 수수료</p> <p>• 항공 화물의 단순중개, 집하(forwarding)수수료</p>
기업의 입장	<p>매출·수입금액 총액선호·경쟁업종</p> <p>(총액으로 공급물량 배정, 코스닥 상장기업 등의 매출유지조건)</p>	<p>보수주의적 소유경영자</p> <p>(최종 기여 순이익은 같으므로 과대매출 반영을 기피하는 경우)</p>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29일 (금)	5월 2일 (월)	5월 3일 (화)	5월 4일 (수)
미 달 러 (USD)	1269.40	1265.40	1265.80	1265.70
일 본 엔 (JPY)	970.16	973.35	972.23	972.75
캐 나 다 달 러 (CAD)	991.06	985.02	982.95	985.94
홍 콩 달 러 (HKD)	161.78	161.26	161.29	161.28
위 안 화 (CNH)	192.03	189.91	189.55	189.51
유 로 화 (EUR)	1332.74	1334.74	1330.10	1331.90
호 주 달 러 (AUD)	901.78	894.64	892.58	898.96
싱 가 폴 달 러 (SGD)	915.31	914.77	913.51	914.36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90.98	290.66	290.75	290.73

시간은 돈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진부할 정도로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은 그리 간단치 않다. 동네 중국 음식점은 대체로 품질과 가격이 비슷하다. 당연히 재빨리 배달해주는 중국음식점에 주문하기 마련이다. 신속 배달이 돈 버는 첩경이다. 미국의 도미노 피자도 30분내 배달로 일어났고 유명해졌다.. DHL도 ‘세계 더 많은 곳으로 더 빠르게’를 캐치 프레이즈로 신속 배달자체를 사업으로 일으킨 기업이다.

공익 서비스인 119 구조대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다. 요즘 다양해지는 ‘직장인 점심 풍속도’를 보자.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 퀵 샹크폴 수술’도 유행이라고 한다. 수술시간은 30분! 피부 맛사지를 위한 ‘런치 필’과 ‘퀵 맛사지’도 번창한다.

뿐만 아니다. 영어공부 토익(TOEIC)문제 풀이반 낮12시 강좌는 정원이 항상 꽉 찰다고 한다. 모두가 속도와 시간을 요리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비즈니스 들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시간은 돈이고 스피드는 생명이다.

전통적으로 패션 유통사업은 상품의 구매비용 또는 생산비용을 낮게 할수록 이윤이 극대화 된다는 원가 중심경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다양해지면서 원가 중심 경영보다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대한 예측이 중심과제가 되었다. 예측의 적중율이 높아야 재고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측의 적중율을 높이는 길은 무엇인가? 상품의 제조 시기와 판매시기가 짧을수록 정확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내일의 일기예보가 일주일 후의 일기예보보다 맞추기 쉽다는 말이다.

사실 중국이나 인건비가 싼 동남아국가에서 생산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는 상품기획이 최소한 1년 정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원가는 30~50%저렴하지만 요즘처럼 패션이 빠른 속도로 변화 하는데 1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 패션흐름에 대처하기 어렵다. 생산기간 뿐만 아니라 운반상 태풍 같은 기후 사정으로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 시즌이 지나서 도착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판매적중율이 떨어져 재고가 쌓여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국내생산은 그렇지 않다. 원가는 중국이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보다 비싸지만 상품기획시기와 판매시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적중율이 높고 패션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생산과 수송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상품기획에서 판매시기까지 약 45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서 판매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영성과인 이익이 최대화 된다. 재고가 쌓이면서 ‘허울좋은 장사’를 하다가 쓰러지는 수많은 패션유통기업을 교훈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유행, 지역에 따른 고객 입맛의 차이와 판매동향 파악에 따른 데이터(Data)가 실시간(Real Time)대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상품기획에서 판매시기까지 순환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완벽하고 투명한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현대 경영은 이와 같이 시간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른바 시간중심경영(Time-Based Management)이다.

고철부산물(스크랩) 거래 시 대금지급관련 문의

Q 당사는 A사로부터 고철부산물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입한 고철부산물에 대해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가 A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받을대금과 스크랩매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습
니다.
이럴 경우 고철부산물의 매입대금은 스크랩계좌로 지급이 되지않는데.
스크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A 스크랩거래의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스크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을 대금은 별도의 계좌로 받으셔야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차 가정용 충전기 회계 계정 처리 문의

Q 당사에서 자율주행 관련 개발을 위해 아이오닉5 (전기차량)을 리스 중입니다. 차량 충전을
위한 가정용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비용을 소모품비와 차량유지비 중 어떤 계
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계정과목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사의 거래 행위에 맞는 타당한 계정을 선택하여 적용
하시면 되는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품목은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충전기에 대해 소모
품비(비용)나 차량유지비(비용)가 아닌 비품(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관련

Q 2월말일까지 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홈택스에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을 해야 하는데 2021년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아 12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가 제
출이 안됩니다. 현재 2021년 1월부터 ~ 11월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완료된 상태이며 만약
12월분이 2월말까지 지급이 안되어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 될까요?

A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2년2월에 지급되는 것은 2023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수선비

Q - 당사 : 휴게소 운영권 임대인 / A사 : 휴게소 운영권 임차인
- 당사가 부담해야 할 수선용역을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임대료 청구시 차감할 경우, 매출부가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A 귀사가 부담할 수선용역비를 임차인이 대신부담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선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귀사 명의로 받아야 하며, 정산시 임대료에서 차감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정산시 임대료에서 차감하고 수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상 임대료 매출금액은 감액하면 안됩니다.

법인사업자 간주임대료 6개월 계약 문의 드립니다

Q 자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건물 일부분을 21년 7월부터 임대할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발생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 : 보증금 × 정기이자율 × 임대기간 ÷ 365일
문의사항) 이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위에 있는 제일 오른쪽 임대일수를 365일로 해야 하나요?

A 귀사가 질의한 산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2년 5월31일까지 2021년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에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① 2021년도 중에 폐업하였다더라도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근로소득자가 2021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 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를 하였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2021년에 사망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되는 경우라도 2022년 5월 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2021년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22년 5월 신고 때까지는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차남이나 출가한 딸이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자

연말정산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또는 작년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빼먹기 쉬운 공제항목은 미취학 자녀의 정규학원비와 정치자금 기부금,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인적공제(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기타소득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합산과세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합산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과세 방식에 따른 상속세 제도

기준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긴 뒤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배분	상속인별로 분할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
세 부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전반적 세 부담 가중	분산되어 상대적 세부담 완화
도입 국가(OECD)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헝가리 등 대부분 국가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구분	세금 혜택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 증여에 비해 낮은 취득세율 •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간 보유주택 수에 미포함
보유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미포함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주택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 상속주택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서울시 제안 재산세 세액공제안

보유 기간	공제율
5년 이상~10년 미만	5%
10년 이상~15년 미만	10%
15년 이상	15%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5%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10%
만 70세 이상	15%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퇴직급여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개인회생 · 파산선고	○	○		
천재지변	○	○		
가입자 사망 · 해외이주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 인가취 소 · 파산	×	○	기타소득세 (16.5%)	퇴직소득세
무주택자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	○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 원치료)	○	○		
그 외의 사유	×	○		
	(전부 해지는 가능)			



시간 경영 5계명

1. 구체적 목표 설정

막연한 기대를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 '무엇을 향해' '누구를 위해' '얼마만큼'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측정 가능하고 기간을 정해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한다"보다는 "다음달 말까지 하루 1시간씩 e-러닝 강의를 듣는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선 순위를 정하라

'일 못한다'는 사람은 중요한 일보다는 갑자기 찾아온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쏟곤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일부터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적고 각 일의 중요도를 감안해 표시를 해두면 편리하다.

3. 미루기 습관을 정복하라

일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일주일을 단식하고 한번에 식사하겠다는 생각과 같다. 따라서 일을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일에 마감시간을 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리 마감시간을 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눠 성취감을 자주 맛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마감을 잘 지켰을 경우에는 스스로 휴식을 갖는 등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전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전화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이면서 업무 방해의 주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적인 통화는 최대한 자제하고, 업무상으로 통화할 때도 신속하게 요점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주 통화하는 상대방이면 통화가 편한 시간을 메모해둬야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긴급적이면 e-메일이나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5. 거절의 달인이 되라

다른 사람의 요청을 끝없이 들어주다 정작 자신의 일은 제때 처리하지 못해 '능력 없다'는 평을 듣는 직장인도 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거절할 때는 우선 거절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최 신 판 례 예 규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기준법령소득-111, 2021.07.23

Ⅰ 질 의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건물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소득법 §19<20>),
-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됨(소득령 §55①(7의2))

질의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자임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소득령 §68①②),
-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Ⅰ 회 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

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970, 2021.07.26

Ⅰ 질 의

- 상종령 §54①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94①4(다)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급배수시설, 야간조명시설, 옥외전기시설 등)이 소득세법 §94①1, 2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Ⅰ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지연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부가-4175, 2021.09.16

■ 질 의

- 질의인은 음식점 개업관련 인테리어공사를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2019년 7월 8일에 등록함
 -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을 2019년 1기로 기재하여 2019년 11월에 발급받아 기한후신고를 함
- 질의
-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는 경우로서
 -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2021.6.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380, 2017.1.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 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확정 6만4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 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31일까지... 38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도 지원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해선 신청 화면 내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상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2. 5

□ (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만 4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3만 3천 명, 파생상품 9천 명)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가능

□ (세정지원) 코로나 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I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개요) 2021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 (안내대상자)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만 5천 명)에 비해 14.4% 증가하였습니다.

* 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3만 3천 명, 파생상품 9천 명

-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¹⁾하거나 출력²⁾이 가능합니다.

1) 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 팩스 등)로 전달

2) 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전자신고)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



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 ❶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여부, 감면확인 등 자가검증 제공
- ❷ 신고대상 물건조회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및 납부
- ❸ 신고가이드,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재외국민 신고안내, 법령정보 가이드맵

- ☐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제공 내용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 ☐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 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챗봇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숏폼 동영상 제공)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 ☐ (홈택스 등 접속 간소화) 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¹⁾, 생체인증²⁾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 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네이버, KB국민·신한은행
 - 2) (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 ☐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① 계산사례 참조)
- ☐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계좌)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확정신고 기한(5. 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①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확정신고'→'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용) 국세청 손택스 ※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선택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30.) ※ 신고 마지막 날(5.31.)은 24:00까지 운영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바로가기 메뉴(숏폼영상, 챗봇상담 등)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기한: '22. 5. 31.(화) 18:00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②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생체인증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 확정신고 계산사례

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1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순서) 동일세율 적용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 이상시 안분)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일반법인)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	25%	25%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② (국내주식 합산신고) '21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5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8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	20%	20%	25%*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 3억원 이하 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③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없음)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계
양도소득금액	200,000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 적용

④ (부동산 합산신고) '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	38%	24%	38%
산출세액	48,050	9,180	70,850
기신고·결정세액	-	-	57,230*
납부할세액	48,050	9,180	13,620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 원) = 48,050천 원 + 9,180천 원

- 합산신고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000	△10,000	17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10,000	167,500
세율	38%	-	38%
산출세액	48,050	-	44,250
기신고·결정세액	-	-	48,050*
납부할세액	48,050	-	△3,800

*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⑤ (부동산 비교과세) '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비교과세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주택)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비교과세)	
	주택(3월 양도)	주택(7월 양도)	산출세액 합계액	누진세율
양도소득금액	135,000	83,000	-	218,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32,500	83,000	-	215,500
세율	45% ¹⁾	24% ²⁾	-	38%
산출세액	44,725	14,700	59,425 ³⁾	62,490
납부할세액	44,725	14,700	-	3,065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10% 가산('21. 6. 1. 이후 양도시 20% 가산)

2) 1주택자로 기본세율 적용대상

3) 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44,725천 원+14,700천 원)

-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토지)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비교과세)	
	상가(5월 양도)	토지(10월 양도)	산출세액 합계액	누진세율
양도소득금액	105,000	85,000	-	190,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2,500	85,000	-	187,500
세율	35% ¹⁾	34% ²⁾	-	38%
산출세액	20,975	23,680	44,655 ³⁾	51,850
납부할세액	20,975	23,680	-	7,195

1) 상가로서 기본세율 적용

2) 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 가산

3) 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20,975천 원+23,680천 원)



참고 3 -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① 부동산 등 신고관련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양도 가액	<p>□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A는 인기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 원 납부 후, 1억 5천만 원 (프리미엄 1억 원 포함)에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2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
	<p>□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p>□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 원, 3억 원으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p>□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부증여 :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나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납세자 D는 3주택자로 '21.8월' 자에게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子是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5억 원을 승계하여 채무 5억 원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3주택 중과 (30%추가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취득 가액	<p>□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F는 15년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p>□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G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

	<p><input type="checkbox"/>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경우</p> <p>◦ 납세자 H는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 원 할인분양 받아 취득하고, 추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 과다신고</p>
필요 경비	<p><input type="checkbox"/>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p> <p>◦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p> <p>*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p> <p>◦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 원)를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대출금이자에는 필요경비공제 안됨)</p>
공제 · 감면 · 비과세	<p><input type="checkbox"/>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p> <p>◦ 납세자 K는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p> <p>*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p> <p><input type="checkbox"/> 거짓매매계약을 작성하여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p> <p>◦ 납세자 L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을 작성하여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배제</p> <p>*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을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됨</p> <p><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p> <p>◦ 납세자 M은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면서,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40백만 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으로 8년에 미달하나 감면 신청</p> <p>* 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 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p> <p><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p> <p>◦ 납세자 N은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 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 원 합계 2억 원 감면 신청,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음</p> <p>*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p> <p>◦ 납세자 P는 기존부동산을 보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p>



공제 · 감면 · 비과세	<p>□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1주택 비과세 신고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P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17년 6월 서울 소재 주택(b)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19년 4월 완공·취득함 ◦ a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뒤, 거주하지 않은 b주택을 '21년 12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함 <p>*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p>
---------------------------	--

② 주식 등 신고관련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p>□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p>
	<p>□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p> <p>* 대주주: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p> <p>☞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p>
	<p>□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p> <p>* 동일주식이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과 상장·비상장 주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 (자산총액 중 비상장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p>
	<p>□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p>
대주주 세율	<p>□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p> <p>*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1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p>
	<p>□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p> <p>*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p>

기본 공제	<input type="checkbox"/>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해야함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한 경우('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 원 공제)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 원 공제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한 경우
대주주 판단	<input type="checkbox"/>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input type="checkbox"/>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 함
국내외 주식 통산	<input type="checkbox"/>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1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1.1. 이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21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 귀속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만 공제 가능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손익 통산이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함



참고 4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소득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 이후 양도분)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세 율	· 국내주식: 10% ~ 30%		
	중소기업	구분	세율
		소액주주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참고 5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소득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세 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 해당없음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참고 6 -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

□ 챗봇 상담 주요 기능

- (자주묻는 질문) 문장으로 질문하지 않고 한 단어만 입력하여도 해당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사용되는 질문 추천
- (세법 풀이) 답변 중에 설명이 필요한 세법 조문(용어)에는 밑줄 표시하고, 조문(용어)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 제공
- (홈택스 연동) 「비과세판정」, 「모의세액계산」, 「조정대상지역 조회」 등은 챗봇에서 홈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
- (스토리보드) 처음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위해 버튼 클릭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챗봇 상담 방법

- 양도소득세 챗봇 기동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버튼

참고 7 -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절차 안내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 절차 필요

① 수임납세자 등록(세무대리인)

- 홈택스 포털에 세무대리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
- 홈택스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선택 후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클릭하여



화면 이동

- '신고대리/납세관리' 화면에서 신고대리 등록버튼을 클릭
-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상세 입력
-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입일자 및 해임일자 입력한 후 “등록하기” 클릭

②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 홈택스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 선택 후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입 동의” 클릭
 -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등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 공동인증서 없는 경우
 - (세무서 방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시 준비할 사항

-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의 신고대리인 수입동의”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

-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입 납세자의 세무 정보 이용 가능
 - 세무대리인은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 → “등록상황 상세조회” 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상태 확인

참고 8 -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① 기본정보 입력

-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 이동 정기신고 선택 후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

① [양도자산종류] 선택

선택 가능 조합		신고서 작성내용
국내	확정-국내/국외 주식합산신고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포함)	① 국내주식 ② 국내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③ 국내파생상품 ④ 국내파생상품+국외파생상품
국외	국외주식	⑤ 국외주식
	파생상품	⑥ 국외파생상품

② [양도연월]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 클릭

③ 신고인(양도인)의 [전화번호], [내·외국인], [거주구분] 반드시 입력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②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입력
- ① 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선택
 -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 입력
 - * 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인 정보 입력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 가능
-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 선택
- ③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선택 (☒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 ④ 입력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③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 ① 국내자산, 국외자산 체크 후 (2)사업자등록번호, (3)국내/국외 구분,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 (4) 주식등 종류코드, (5)양도유형 (6)취득유형,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필수 입력
- ②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권종목코드 조회] 메뉴 선택 > 종목코드 또는 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③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을 까지 입력)



- *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여' 선택
- ④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추가)하기 버튼 클릭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에 추가
 - 신고대상으로 입력한 자산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 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
- ⑥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버튼 클릭
- ⑦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⑧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저장
- ⑨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④ 세액계산 및 확인

-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 ①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 ② 입력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연간 한도 250만 원)
- ③ [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신고서 존재 확인
- ④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참고 9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1. 신고대상 등

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등
 - 2021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의 일부 포함)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

구분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확정신고 세액 (누진세율)	'22. 5. 31.까지 추가납부할 세액
	'21년 3월	'21년 11월		
과세표준	30,000,000	40,000,000	70,000,000	3,240,000
세율구간	15%	15%	24%	
산출세액	3,420,000 ¹⁾	4,920,000 ¹⁾	11,580,000 ²⁾	

- 1) 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 과세표준 × 24% - 5,220,000원
-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

구분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확정신고 세액 (비교과세 ³⁾)	'22. 5. 31.까지 추가납부할 세액
	'21년 5월	'21년 10월		
과세표준	100,000,000	40,000,000	140,000,000	1,080,000
세율구간	35% (일반세율)	35% (2주택중과세율)	35% (일반세율)	
산출세액	20,100,000 ¹⁾	12,920,000 ²⁾	34,100,000 ¹⁾	

- 1)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 2) 과세표준 × 35%(15%+20%) - 1,080,000원
- 3) (비교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과(34,100,000원)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33,02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함

②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 ~ 45%)
		2년 미만	❶ ('21. 5. 31.까지)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❷ ('21.6.1.이후) 일반 40%,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1년 미만	❶ ('21. 5. 31.까지)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❷ ('21. 6. 1.이후) 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2주택		기본세율+20%('21. 5. 31.까지 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30%('21. 5. 31.까지 20%)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		❶ ('21. 5. 31.까지)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❷ ('21. 6. 1.이후) 지역불문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기타자산		기본세율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세 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5%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5%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파생상품

과 세 대 상		세율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 4. 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10%
국외	해외 장내 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④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 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 부과
 - 부정확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 원만 공제합니다.
 - *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구분	2019년 귀속(종전)	2020년 귀속 이후 (변경)
양도손익 계산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 불가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 가능
기본 공제	국내·국외 주식 각각 250만 원	국내·국외 주식 합산하여 250만 원

⑥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시면 됩니다.

⑧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듬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 전에 정정하여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전자신고

⑨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 ☐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가능합니다.
- (통산신고시 미리채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로 제공

⑩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 ☐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⑫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⑬ '20. 1. 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⑭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¹⁾나 손택스²⁾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2) 손택스(스마트폰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⑮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 2022. 5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 6. 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5. 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 (신청방법)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 ①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②우편안내문의'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자동응답전화) ③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합니다.
- (미안내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④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화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안내자 신청접수 포함)해 드립니다.

1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 원 → 2,200만 원	3,000만 원 → 3,200만 원	3,600만 원 → 3,800만 원

②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

□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 → 큐알코드 비추어 신청

③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애플은 App Store에서 '홈택스'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4 「신청요건·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제공

-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동영상과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신청요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 '큐알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 (미안내자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방법이 간단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1)해야 하므로 따라 하기 쉽도록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2) 합니다.
- 1) (사례) 사업주가 폐업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여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접속 → 동영상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등) → 접속 → 동영상

5 환급신청 계좌 오류 실시간 검증서비스 제공

-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신청 계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오류 입력*에 따른 환급(지급) 지연, 미수령 환급금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신청 계좌 입력 오류: 77천 건
- ※ 계좌오류가 있으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함이 있음

2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① (가구 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 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3.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구 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 원 미만	4만~3,200만 원 미만	600만~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③ (재산 요건) 2021.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홈택스앱 (이용시간: 06시 ~익일 01시)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올해부터 기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이외에 생체인증 방법(지문·face)을 추가함

-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②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톡으로, 미가입자는 문자로 발송함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 발송함

-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안내문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로 미신청한 경우 발송)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작년까지는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 24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지, 처음 신청하는 지로 구분하여 안내문 발송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③ 홈택스(PC)(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 ~ 익일 01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④ 「신청도우미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홈택스앱,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접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4**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안내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앱)'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참고	주요 문답 사례 (Q & A)
사례 1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사례 2 |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① 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② 국민비서, ③ 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 ①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❶ 열람하기를 누르고, ❷ 본인인증을 거쳐 ❸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
- ② (국민비서 알림)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 ③ (우편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
- ④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
- ⑤ (미안내자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

사례 3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사례 4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앱)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합니다.
-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등)
 -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사례3 경로 참조),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하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를 보내드립니다.

-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접속 → 동영상
홈택스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등) → 접속 → 동영상

사례 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사례 6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 7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8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

구 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만 ~ 150만 원	3만 ~ 260만 원	3만 ~ 300만 원
자녀장려금	-	50만 ~ 70만 원 (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사례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례 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